

# 도시청년들 전남 어촌발전 아이디어 보탠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어촌 관광 프로젝트 시작  
여수 안포·해남 송호마을  
목포 (주)공장공장 직원들  
매달 만남 발전전략회의



지난 12일 박명호 (주)공장공장 대표 등 직원들이 해남 송호마을을 방문해 어촌 관광 진흥을 위한 발전 방안을 어민들과 협의하고 있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가 전남의 우수 어촌과 도시 청년들이 수시로 만나 어촌 발전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창안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도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마을특산물로 가공상품을 만들고 있으며, 관광프로그램이 가능한 어촌에 기획·홍보·마케팅·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도시청년들이 함께 어촌의 소득 향상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모색하는 장을 마련한 것이다. 센터는 16일 "지난 12일 코로나 19 사태로 연기했던 전남 어촌 관광 진흥 프로젝트를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을 통해 자체 상품과 관광지를 구축한 여수 안포마을과 해남 송호마을 2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 어촌에 목포 '괜찮아 마을'을 운영하며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얻고 있는 (주)공장공장의 직원 5-7명이 앞으로 매달 1-2차례씩 찾아 어촌발전전

략회의를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개최하게 된다. 전략회의에서 도출된 어촌 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 공모사업 참가 ▲센터 지원 ▲어촌 및 (주)공장공장 협력 사업 등으로 분류해 추진할 예정이다. 박명호 (주)공장공장 대표는 "그동안

(주)공장공장은 수도권, 대도시에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청년들이 모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며 "전남 어촌이 가진 무궁무진한 자원에 이야기를 입히고, 영상, 디자인 등으로 잘 표현해 수도권,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겠다"고 말했다. 이회한 여수 안포 어촌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쇠락하고 있는 어촌에 필요한 것이 바로 다양한 능력을 가진 도시 청년들과 교류"라며 "이들이 어촌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사업, 프로그램을 창안한다면 어촌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수 안포마을과 해남 송호마을은 특산물 피조개와 전복을 원재료로 해 분말가루와 스펙 등을 OEM(주문자상표부착 상품)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피조개-전복 분말은 전국 230여 개 자연드림 매장에 납품되고 있는 등 전남의 대표 우수 어촌으로 알려져 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 3개업체 서울국제주류박람회 참가

지난 12일부터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0년 서울국제주류박람회'에 대대농조조합법인 등 전남도내에서는 3개 업체가 참가했다. '서울국제주류박람회'는 매년 3만명이 방문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주류 전문 전시회로, 한국과 일본, 미국 등 각국 주류 전문 회사들이 참가해 주류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는 전시플랫폼이다. 박람회에서는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행사기간 동안 각종 세미나와 세계 전통주 페스티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펼친다. 전남도는 이번 박람회에 ▲2015년 우리술 품평회, 2009-2015년 남도 전통술

품평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진도군 '대대로영농조합법인'의 대대로700 등 4개 제품 ▲2012년 남도 전통술 품평회 우수상을 수상한 나주시 '남도탁주'의 정고집옛날생동동주 등 3개 제품 ▲2019년 남도 전통술 품평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장성군 '해월도가'의 장성만리 소주 등 3개 제품 등을 출품해 남도 전통주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집중했다. 강종철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코로나19로 유통처인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박람회 참가비와 함께 시설 현대화 지원 등을 통해 남도 전통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판로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여름철 녹조 선제 대응 나선다

오염원 저감·모니터링 강화

전남도는 올해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한 일사량이 예상돼 녹조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시·군, 유원기관과 협력, 오염원 유입 저감을 비롯 녹조 모니터링 확대, 녹조 현장 대응 강화, 녹조 발생 시 신속 대응 등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지난 11일 녹조 발생 예방을 위해 무안군과 민간환경단체(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 전라남도 새마을회)가 참여한 가운데 무안 남장천(9개소)과 영산호(2개소) 하류 정제수역에 수질정화시설물인 부레옥잠을 식재한다. 오염원 유입 저감을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영산강 유역 공공 하수처리장의 방류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폐수배출사업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9월까지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또 녹조 모니터링 확대·강화를 위해 영산강 송촌보, 죽산보 구간과 주요 상수원인 주암댐, 장흥댐, 동북호 등에 대한 수질 분석(주1-2회)과 항공감시(드론), 하천 순찰(환경지킴이), 수질자동측정장 운영(5개소) 등도 나설 예정이다. 녹조 발생 시 취수탑 부근 차단막 설치·운영, 취·정수장에 유입될 녹조 최소화 방안 등 녹조 현장 대응 강화계획도 점검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한국수자원공사, 시군과 협력해 조류제거 선박 등 가용 장비를 동원하고, 조류 성장 억제와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박현식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녹조 사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먹는 물 안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식약처 '식품안전관리' 최우수 기관

고흥·해남·함평군 우수기관

전남도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올해 '식품안전관리'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6년 연속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기초자치단체(226개) 평가에서는 전국 11개 시·군·구가 수상한 가운데 전남도내에서는 고흥군, 해남군, 함평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식품안전관리 평가는 매년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식품안전관리 인프라와 기초 위생관리, 정부 주요시책 분야 등 11개 세부 추진사항을 평가한다. 전라남도는 음식점, 식품제조·가공 판매업소 5만150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식품 회수를 비롯 업체 점검률,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활동, 종사자 교육 등 평가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광주세계수업연수권대회와 세계한상대회, 국제농업박람회 등 국제행사로 관광객이 많이 방문할 것을 대비, 대회 관련 시설과 관광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위생안전 지도·점검을 실시한 것이 이 같은 결과를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올해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에 대한 식품안전·전절 교육, 식중독 예방물품 지원 등으로 식품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식품접객업소 생활속 방역수칙 준수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저소득 학생 5만2000명에 전남도 학교 우유 무상 공급

전남도는 전 학년 개학에 따라 올해 농촌·도시지역 저소득 학생 5만2000명을 대상으로 학교 우유 무상 공급에 나선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가정이 어려운 초·중·고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100% 원유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 우유, 강화우유, 저지방우유)를 연간 최대 250일까지 공급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올해 총 사업비 5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최근 3년간 예산 151억원을 투입, 전남도내 886개교 초·중·고 학생 16만 명에게 무상으로 우유를 공급한 바 있다. 사진은 우유를 마시고 있는 전남도내 학생들. <전남도 제공>



# 코로나19 걱정 없이 떠나요...남도 힐링 브릿지 여행 서남해 연륙·연도교·섬 홍보 책자 발간

전남도가 최근 잇따라 섬 연륙·연도교가 개통함에 따라 이를 주제로 '남도 힐링 브릿지 여행'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책자는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하고 떠날 수 있는 최근 여행 트렌드를 반영, 서남해안의 아름다운 섬과 바다를 감상하며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연륙·연도교'를 전남의 특색을 살린 관광 콘텐츠로 홍보하기 위해 제작됐다.

책자는 여행 가이드 북 형식으로 제작됐다. 서남해안 연륙·연도교 25곳을 6개 테마로 나눠 섬·바다 위를 마음껏 달릴 수 있는 해상 교량을 비롯 크고 작은 섬들이 어우러진 다도해의 아름다운 관광지, 섬·해양 특화자원 등을 함께 소개했다. 6개 테마의 연륙·연도교 25곳은 ▲백리섬섬길(여수·고흥간 도로, 조화·문병·남도·적금·팔영대교) ▲요즘대세 섬캠프(신

안 증도대교, 완도 신지대교) ▲아름다운 야경맛집(신안 천사대교, 목포대교, 여수 돌산·거북선대교, 고흥 소록대교) ▲걸어서 바다 끝까지(강진 가우도출렁다리, 신안 퍼플교·짱뚱다리, 장흥 회진대교, 해남 임하고) ▲섬과 섬타자(고흥 거금대교, 여수 화태·장보고대교, 완도 약산연도교) ▲바다 건너 이곳저곳(이순신대교, 칠산대교, 고금대교, 진도대교) 등이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광동 전남도 관광과장은 "섬과 바다를 가리지 않는 해상교를 달리며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하고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남의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와 안심 여행을 테마로 한 여행상품을 지속 발굴하고 홍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